

교육원, 신라 구법승 자취따라 중국 선종 사찰 순례



조계종 교육원이 간화선의 원류를 돌아보기 위해 지난 4월 15일부터 21일까지 중국 선종사찰 순례를 실시했다. '선의 황금시대를 찾아가는 순례의 길'을 주제로 진행한 이번 순례는 안후이성 첸산현 삼조사를 시작으로 항저우 영은사에 이르기까지 2,000km가 넘는 중국을 횡단하는 7일간의 여정이였다. 신라 구법승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이번 순례에는 총주 석종사 금봉선원장 해국스님을 지도법사로 스님 50여 명의 구도자들이 참가했다.

4월 16일 가장 먼저 도착한 안후이성의 삼조사에서 해국스님은 "이곳은 본래 죄가 없다고 하는 인간해방이 이뤄진 도량이다. 인간의 본질을 알려주는 주요한 성지다. 이런 마음으로 도량을 참배했다면 한다."고 순례에 임하는 스님들의 마음 방향을 잡아 주었다.

삼조사는 2조 해가스님의 뒤를 이어 3조에 오른 승찬 조사의 도량이다. 삼조사 경내에는 승찬스님이 선 채로 입적했다는 입화탑, 수행처인 삼소굴, 그리고 사리 300과 가운데 100과를 모신 삼조탑이 있다.

순례단은 이어 삼조사에서 두 시간을 버스로 이동해 4조 도신스님이 머물던 후베이성 황메이현의 사조사에 도착했다. 중국 선종의 6대조 가운데 3조 승찬스님까지는 선법 도량이 없어 곁식하며 떠도는 생활을 하지만 4대조부터는 도량에 정착해 법을 펴게 된다. 이곳이 바로 그곳이다. 도신스님의 4대 제자로 이름을 떨친 신라 유학승 법랑스님도 사조사 비로담 안에 도신스님과 함께 입상으로 함께 모셔져 있다. 해국스님은 "법랑스님이 스승인 도신스님에게서 받은 법은 신라에 전해져 구산선문의 하닌 문경 봉암사 회양산문의 기원이 된다."고 설명했다.

오조사는 사조사에서 동쪽으로 30km 떨어진 황메이현 빙무산에 있었다. 특히 오조사는 6조 혜능스님이 행자 신분으로 법을 전해 받은 현장이다. 혜능스님이 8개월간 방아를 짚던 자리에 디딤방아를 재현해 놓은 육조전이 있었다. 흥인스님이 혜능스님에게 달마선사로부터 이어진 의발을 전해 준 곳이다.

순례단은 백장청규의 발상지 백장사, 서은사, 우미사 등 신라 구법승들의 사상이 녹아있는 도량을 참배할 때마다 추모 다례재를 거행하고 새로운 구법의 의지를 다졌다. 백장사는 진성여왕의 즉위 전후에 당나라에 들어가 장시성 푸저우에서 광인선사를 은사로 득도한 안선사(安禪師)가 주지로 있었던 곳이며 장시성 서은사는 신라의 원랑대통 선사가 머무르던 곳이다. 특히 우미사는 신라 고승인 도의스님이 육조 혜능스님의 계보를 잇는 당나라 서당 지장스님을 만나 법을 전수받은 곳으로 당시에는 흥주 개원사로 불렸던 곳이다. 이곳에는 지난 2008년 조계종이 세운 도의국사 입당구법 기념비가 있다.

선의 원류를 따라 신라 구법승의 자취를 돌아보며 새롭게 분발한 순례단은 간화선의 정신을 원형 그대로 계승하고 있는 한국 불교야말로 선 정신 복원에 대한 막중한 책임이 있음을 깨닫고 정진을 다짐했다.

세월호 희생자 추모: 무사 귀환과 극락왕생 기원

순례 시작 다음 날 일어난 세월호 참사를 전해 들은 순례단은 4월 19일 백장사에서 추모 다례재를 봉행했다. 희생자들에게 대한 추모 묵념으로 시작된 의식은 40여

분 동안 삼귀의례 반야심경, 금강경 봉독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스님들은 실종자들의 무사 생환을 기원하고, 희생자들이 나고 죽는 생사윤회의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기를 기도했다.

이번 중국 선종사찰 순례는 조계종 교육원이 선종과 간화선의 원류를 돌아보기 위해 마련한 승려연수교육 프로그램 가운데 하나다.

조계종 교육원 www.buddhism.or.kr

조계종 국제불교학교 새 학장에 선일스님 임명

용인 화운사 주지 선일스님이 조계종 국제불교학교 새 학장에 임명됐다. 선일스님은 "국제불교학교가 위치한 화운사는 1962년부터 학인 스님들의 교육을 담당했던 교육 도량"이라며 "국제불교학교를 운영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선일스님은 1981년 통도사에서 자운스님을 계사로 사미니계를, 1998년 범어사에서 자운스님을 계사로 구족계를 수지했다. 동국대에서 선학을 전공했으며 운문사승가대학을 졸업했다. 인도 뿌나대학에서 팔리어와 산스크리트어 석·박사학위를, 스리랑카 페라데니아 대학에서 팔리삼장 및 불교학 박사학위를 취득했다. 은석초등학교 교법사, 스리랑카 국제불교센터 연구원을 역임했으며 현재 조계종 교육아사리아자 화운사 주지 소임을 맡고 있다.

국제불교학교는 한국불교 세계화에 이바지할 인재 양성을 위해 조계종이 2011년 3월 25일 개원한 비구니 영어 전문 특수교육기관이다. 입학생들은 사찰에서 대중생활을 하면서 원어민 강사의 지도를 받는다. 해외 연수 포함



2년간 수업과정을 마치면 3급 승가고시 응시자격을 주며 조계종 국제회의와 국제행사의 진행과 통역, 템플스테이 지도를 담당할 수 있다. 지난 2월, 2회 졸업식에서 졸업생 6명을 배출했다.

국제불교학교 031-323-5063

한·중·일 대학들 제1회 국제학술대회 개최

공동 국제학술대회 정례화 위한 협정식도 가져

동국대 개교 108주년을 기념해 동국대와 북경대, 대만대, 동경대가 국제학술세미나를 개최했다. 동아시아의 불교 전통과 근대 불교학을 주제로 5월 9일부터 10일까지 동국대 학명세미나실에서 열린 세미나에는 총 10명의 세계 불교 석학들이 참석해 '근대 불교학의 동아시아 전개'와 '동아시아 불교의 다양한 시선' 등을 주제로 2부로 나눠 의견을 나눴다. 이번 세미나는 서구 불교학이 세계화계를 주도하고 있는 실정에서 그 중심축을 동아시아로 되돌리는 방향성을 모색하는 자리였다. 이를 위해 앞으로 공동 국제학술대회를 정례화하는 협정식도 가졌다.

첫 번째 발표자로 나선 리스롱 북경대 교수는 '현대 중국 대륙 불교 연구의 새로운 추세'라는 논문을 통해 선 수행과 이론, 불교의식 연구, 밀교의 부흥 과제 등이 현재 중국학자들 사이에서 큰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있다고 밝혔다.

리 교수는 "불전 속의 선관(禪觀)에 대한 서술을 어떻게 이해하고 역사상 고승의 선법과 경지를 어떻게 분석할 것인가가 당장 착수해야 할 시급한 문제"라고 제안했다. 또한, 선 수행의 심화연구 필요성을 제기하며 수행자의 심리 체험을 불전적 전거와 연관 지어 기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뚜바우이 대만대 교수도 '중국 대승 불교의 문제의식과 이론구성'이라는 제목의 논문에서 "선정(禪定)과 같은 관념은 모두 일반인의 현실경험으로 알거나 느낄 수



있는 게 아니다"며 "진실임을 증명하려면 또 다른 이론으로 풀어내거나 새로운 불교 이론을 창조해야만 해결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시모다 마사히로 동경대 교수는 앞으로의 불교학은 디지털 매체에 의한 인문정보학 없이는 앞으로 나아갈 수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시모다 교수는 "디지털 매체가 급속하게 보급되면서 종이 매체의 특성에 제약받지 않으면서 자료의 본래 가능성을 모색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로 떠올랐다." 말하고 최근에 이뤄지고 있는 미국 50여 개 주요대학 도서관과 구글(Google)이 공동으로 도서를 디지털화하는 프로젝트를 대표적인 사례로 들었다.

김용태 동국대 불교학술원 교수는 식민지기 근대불교학 도입 이후 한국불교가 일본이나 중국과 완전히 다른 독자적 불교를 주체적으로 창조하기 위해 펼친 노력을 집중 조명했다. "동아시아는 공통된 사상과 문화적 특징으로 인해 동질적 불교전통을 함께 공유하고 있다"며 "한국불교 연구를 위해 동아시아 불교 세계에 작동해 온 상호



성과 보편성의 원리를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밖에도 첸진화 브리티시 콜럼비아대

교수, 왕송 북경대 교수, 차이야오밍 대만대 교수, 미노와 켄로 동경대 교수, 고영섭 동국대 교수, 미국 듀크대 일미교수 등이 발표자로 참석했다.

이날 행사를 주관한 김종욱 동국대 불교문화연구원 HK연구단장은 개회사에서 "동아시아 인문 네트워크"를 형성해 세계 불교학의 중심을 다시 동아시아로 되돌리고, '동아시아 불교문화권' 담론을 형성해 동아시아의 소통과 화해의 초석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글_ 편집부**

샤카디타 코리아, 부탄의 따쉬 장모 박사 초청 강연회 개최

샤카디타 코리아는 서울대학교 여성연구소와 공동으로 5월 1일 부탄의 따쉬 장모 박사를 초청하여 강연회를 가졌다. 서울대 영문학과에서 열린 강연회에서는 오랫동안 독자적인 전통을 고수했던 히말라야 왕국 부탄여성들의 삶에 대한 얘기가 펼쳐졌다. 근대화의 물결 속에서도 국민총행복지수(GHP)를 도입해 국민들의 삶의 가치를 추구하는 등 이상적인 국가로 시선을 모으고 있는 미래국가 부탄, 그러나 아직도 남성 우위의 사회에서 여성들은 불평등과 차별을 경험한다.

다음은 강연에 참가한 국립호주대학 박사이며 서울대 여성연구소 방문연구원으로 있는 리나 콜레이라트가 쓴 글을 번역했다.

2014년 5월, 따쉬 장모의 한국방문

5월 1일 따쉬 장모는 강의실에 모인 청중들을 부탄으로 안내했다. "신비와 은둔의 나라 부탄, 여성으로 태어나서 여성으로 살다"라는 주제의 강연에서 그녀는 부탄의 역사와 현재 상황을 열정적으로 얘기했고, 특히 부탄 문화에서 불교가 차지하는 위치를 강조했다. 장모 박사는 부탄은 인구 백만도 채 못 되는 작은 나라로 부탄의 국민들은 대부분 불교도이며 중국과 인도 사이 히말라야 산맥의 동쪽 끝 자락에 위치한다고 설명했다. 부탄은 2008년 절대군주제에서 입헌군주제로 전환했으며, 현재는 젊고 대중의 인기를 한몸에 받고 있는 직메 케사르 남질 왕축왕이 나라를 이끌고 있다고 했다.

따쉬 장모 박사는 암허스트의 매사추세츠 대학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했으며, 부탄의 아쉬 쟈링 양돈 왕축 대비의 후원으로 2009년 설립된 부탄여성재단(Bhutan Nuns' Foundation)의 설립자이며 사무총장이다. 부탄여성재단은 부탄 여성들이 더 나은 교육을 받을 수 있고, 지위가 향상될 수 있도록 후원하기 위한 재단이다. 현재 부탄에는 25개 여성 사찰이 있는데 각각 15명부터 50여 명에 이르는 젊은 여자 승려들이 살고 있다. 알다시피 티벳불교 전통에는 비구니 교단이 존재하지 않



기에, 비구니 수계도 비구니도 없다. 집을 떠나 출가하여 승려 생활을 한다 하더라도 기껏해야 사미니계를 받거나 아니면 아예 수계 받지 않고 살고 있다. 이들의 사찰은 비구 사찰보다 지원이 미약하여 열악한 환경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따라서 부탄여성재단은 교육과 자급자족을 통해 이들의 권한을 확대하기 위해 활동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따쉬 장모 박사는 방한 기간 동안 이 강연회 이외에도 한국 불교계의 인사들, 특히 지도자급 비구니 스님들을 만나 한국의 여성수행자들로부터 부탄의 여성들이 자랄 수 있는 지혜를 얻고 한국과 부탄 불교 간의 가교가 이어지기를 바란다고 피력했다. 금륜사에서 머무르며 본각 주지스님과 많은 대화를 나누는 한편 해인사 금강굴의 불필스님과 운문사 명성스님을 친견했다. 또 미국 뉴저지 보리사에서 국제 포교에 헌신하고 계신 원영스님을 하남 정심사로 찾아가 의견을 교환했다. 장모 박사는 발전된 한국 비구니 교육의 수준이 바로 부탄 여성들의 목표라고 밝히고 한국과 부탄의 불교문화 교류를 확대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국민의 97%가 행복하다고 말하는 나라, 부자이기를 원하지 않는 나라, 첫눈 오는 날이 휴일인 나라, 전통과 현대를 아우르며 새로운 미래국가의 이상향으로 떠오르고 있는 히말라야의 부탄왕국, 그곳 여성들과 여성 수행자들의 삶도 그만큼 더 발전하기를 기대한다.

글_ 샤카디타 코리아
- 이 글을 쓴 리나 콜레이라트는 현재 The Australia-Korea Foundation of the Department of Foreign Affairs and Trade 를 통해 호주 정부의 장학금 지원을 받으며 연구 활동 중이다.

불교와 영어, 지혜와 신심의 교실 '기초불교 영어강좌'

5월 21일, 저녁 7시에 시작한 강의가 두 시간 넘게 진행되고 있는 전법회관 지하 1층 교육관, 늦은 시간임에도 수강생들의 눈빛은 초롱초롱 빛난다. 영어를 통해 불교를 공부하는 색다른 수업이라 하나라도 놓칠까 집중하는 모습이다.

"요즘 부쩍 불교에 관심이 가면서 제가 좋아하는 영어로 불교를 공부하고 싶어졌습니다. 보통 불교는 어렵다고 해서 주저했었는데, 절에 가서 그냥 둘러보기만 하기보다는 의미들을 알고 싶어 용기를 냈어요. 영어로 공부하니 뜻밖에 쉽게 이해가 됩니다."

대한불교조계종 국제포교사회가 진행하는 기초불교 영어강좌는 불교와 영어에 관심이 많은 이들에게 이미 잘 알려진 강좌이다. 부처님의 생애와 가르침, 불교의식 및 예절, 불교 예술, 한국의 불교건축, 불교용어 등 불교 전반에 대해 영어로 공부하며 교재는 미국 공영방송(Public Broadcasting System)에서 제작한 부처님의 생애와 가르침(Buddha's Life and Teachings)을 기본으로 필요에 따라 보충자료가 제공된다.

강사들의 면면도 예사롭지 않다. 봉녕사



승가대학을 졸업하고 미얀마 테라와다 국제대학, 스리랑카 켈라니아대학(캘리불교학 석사)에서 수학했을 뿐만 아니라 간화선 및 미얀마, 인도에서의 위빠사나 수행 경력을 가진 혜연스님, 번역가이며 작가이고 또한 불모(佛母)이기도 한 브라이언 배리 등이 특히 눈에 띈다. 주목할 점은 2010년부터 조계종 교육원의 승인을 받아 승가 연수교육 인증과정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본 과정 수료 시 국제포교사자격 고시에서 가산점이 부여된다는 것이다.

강좌는 1년에 4번 시행되며 현재 33기 강좌가 4월부터 6월까지 진행되고 있다. 불교로 영어를 공부하기 원하는 사람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지구촌공생회, 몽골에 푸른 희망을 싹 틔우다

‘아름다운 동행’ 지원으로 마을 녹색화 사업 본격화

황사의 발원지 몽골에 푸른 희망이 솟아 나고 있다. 최근 사막화로 인하여 유목생활이 어려워진 몽골의 유목민들이 수도 울란바토르 외곽지역에 몰려들고 있다. 하지만 많은 사람이 변변한 직업을 갖지 못해 정부 지원금에 의존해 살고 있다.

사단법인 지구촌공생회는 울란바토르 외곽 항울구 13동 주민들을 대상으로 텃밭 농가를 육성하고 경제림을 통해 푸른 마을을 만드는 마을 녹색화 사업을 펼치고 있다. 저소득층 주민들에게 모종육성과 작물 재배교육을 하여 주민들의 소득증진을 모색하고 있다. 특히 올해는 ‘아름다운 동행’의 지원으로 57가구에 과실수 묘목을 지원하고 주민들 스스로 묘목을 관리하게 함으로써 장기적으로는 소득증대와 함께 나무가 가득한 푸른 마을로 탈바꿈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매년 황사로 인한 피해가 반복되고 있는 한국과 일본은 중국과 몽골에 해마다 수십만 그루의 나무를 심어 가꿔오고 있다. 하지만 그 효과에 견줘 엄청난 비용이 소요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지구촌공생회는 새마을운동의 과정에서 크게 성공한 대한민국의 산림녹화 방식을 도입했다. 주민들에



게 이익이 되는 작물을 보급해 주민 스스로 키우게 함으로써 적은 비용으로 큰 효과를 낼 수 있도록 방식을 개선했다.

2013년 시범 사업으로 10가구에 오이 모종과 과일나무를 지원한 결과, 주민들의 소득증진과 식생활개선의 효과가 있었고, 지원된 나무들도 성공적으로 뿌리내림으로써 사업의 가능성을 확인했다. 올해에는 지구촌공생회 몽골지부 농업교육장에서 오이 모종을 만드는 교육을 하여 참여자 모두가 자신이 키워낸 오이 모종으로 직접 텃밭 재배가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자체적인 농업활동을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가고 있다. 직접 키운 오이 모종은 조만간 17가구에 가구당 100주씩 지원된다.

(좌)묘목심기 (우)지역주민이 튼튼하게 키워낸 오이 모종들이 집안 텃밭에 식재되기를 기다리고 있다.



지난 5월 13일~14일에는 몽골의 식목일에 맞춰 지역주민 57가구에 과실수 묘목을 지원했다. 몽골의 건조하고 척박한 토지에서도 자랄 수 있으면서 동시에 상품성이 있는 차차르강, 우흐린누드를 가구당 12그루씩 총 684그루 보급했다.

대규모 관정과 급수시설을 통해 나무를 키우는 기존의 방식 대신 페페트병을 활용한 적정기술 도입과 과실수 재배로 지역주민들의 소득이 창출되고 푸른 나무가 우거진 마을로 거듭날 수 있도록 정기적인 모니터링을 할 예정이다.

몽골에서 진행되고 있는 지구촌공생회의 농업육성사업은 2010년 농업교육장을 설립한 이후, 2012년부터는 KOICA(한국국

제협력단) 지원으로 농업교육장을 확충하여 주민들을 대상으로 농업 전반에 대한 교육과 실습이 진행되었으며, 2014년 ‘아름다운 동행’의 지원으로 마을 녹색화 사업이 본격적인 실행 단계로 접어들었다. 올해는 재배지역과 판매처와의 거리가 멀어 개인적인 판매활동이 쉽지 않은 점을 보완하기 위해 참여주민들이 함께하는 공동판매의 형태로 진행될 것이다. 또한, 지역주민의 농업기술을 향상하고 환경의식을 높이기 위해 환경보호소양교육, 묘목관리교육, 퇴비생산교육 등이 진행되었으며, 다음에도 정기적인 교육을 통해 지속적으로 농가를 육성해 나갈 예정이다.

글_ 지구촌공생회

▼ 교육 수료 후



선재마을의료회, NGO BUD에 의약품 지원

국내외에서 의료봉사 활동을 펼치며 자비 인술을 실천하고 있는 선재마을의료회가 제3세계 어린이들을 위해 의약품을 지원했다. 선재마을의료회(회장 장연복)는 지난 14일 서울 봉은사에서 국제구호개발 NGO BUD(이사장 우학스님)에 2500만 원 상당의 어린이 항생제를 전달했다. 이날 선재의료회가 전달한 의약품은 NGO BUD의

해외 어린이 구호 및 네팔 의료봉사 활동에 사용될 예정이다.

여옥숙 선재마을의료회 부회장은 “1999년 설립 이후 의료회가 꾸준한 활동을 펼치면서 의약품을 기증받아 NGO BUD에 전달하게 됐다.”고 밝혔다.

선재마을의료회는 1999년 봄 IMF로 나라가 침체에 빠졌을 때 선재마을 회원들을 중심으로 우리 불자들은 무엇을 하고 있느냐 하는 반성으로 결성되어 의료 봉사를 기획, 실행했다. 순수한 민간 차원의 활동으로 그간 외국인 노동자, 노숙자들을 대상으로 꾸준히 활동해 왔으며 중국 조선족 마을과 몽골 울란바토르에서 해외의료사업을 펼쳤다.



NGO BUD 후원 1666-7667

네팔불자모임, 서울 도선사서 첫 월례법회 열어

도선사주지 도서스님은 5월 11일 네팔 불자모임(Nepal Buddhist Family, 회장 이스워드 구름) 정기법회를 시작으로 매월 첫째 주 일요일 낮12시 정기월례법회를 봉행한다.

1996년 1월 창립해 회원 300여 명이 참여하고 있는 네팔불자모임은 매월 정기법회 때마다 50, 80명이 참여하고 있지만, 안정적인 법회 공간을 찾지 못해 이곳, 저곳을 전전해야만 했다. 도선사는 네팔불자모임의 연등회 연등 행렬 장엄등을 수년째 경내 창고에 보관해 주다가 정기법회를 볼 사찰을 찾기가 어렵다는 안타까운 이야기를 전해 들은 뒤 곧바로 월례법회를 지원해주겠다고 화답했다.

도선사는 11일부터 네팔불자모임이 월례법회를 거행할 수 있도록 법회 공간과 점심공양을 제공할 뿐만 아니라 도선사 사회국장 도법스님을 네팔불자모임 지도법사로 임명해 더 체계적인 실행 활동을 이어갈 수 있도록 전폭적인 지원을 제공하게 됐다. 특히 도선사는 지난해 5월 네팔에서 평화의 불과 함께 람바란 야다브 네팔 대통령이 회신한 네팔 불상을 봉안하고 있는 만큼 네팔불자모임 회원들에게는 여느 사찰보다 인연이 깊은 사찰이다.

지난 11일 도선사에서 열린 첫 정기법회에 참석한 30여 명의 네팔불자모임 회원들은 네팔 불상을 카다존경을 뜻하는 첸와 룡(명화를 상징하는 다라니 번)으로 장엄하고

과일과 초, 들(네팔향) 등 공양물을 올린 뒤 본격적인 법회를 시작했다. 도선사에서 열린 첫 법회인 만큼 한국불교식으로 삼귀의와 반야심경 봉독, 지도법사 도법스님의 인사말을 가진 데 이어 네팔불교식으로 기도 및 발원, 옴마니반메후 정근 등으로 법회를 거행했다. 이어 후원으로 자리를 옮겨 네팔인에게 맞게끔 마련된 점심공양과 도선사 참배의 시간을 가졌다.

네팔불자모임 지도법사 도법스님은 인사말에서 “도선사는 네팔에서 평화의 불과 부처님을 모셔오는 등 인연이 깊은 도량”이라며 “부처님의 인연법으로 만났는데 앞으로도 좋은 인연을 계속 만들어가며 한국에 있는 동안에도 부처님의 가르침을 배우고 실천하는 참된 불자가 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스워드 구름 네팔불자모임 회장은 “안정적인 법회 공간을 마련한 만큼 앞으로 더 많은 회원이 법회에 참석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감사인사를 전했다.

도선사 주지 도서스님은 “우리나라에는 수많은 다문화가정이 있지만, 여전히 많은 관심과 격려가 필요한 상황”이라며 “먼 이국땅에서도 부처님의 자비 말씀을 접하고 불자로서 마음에 위안을 얻는 실행 활동을 영위할 수 있도록 네팔불자를 시작으로 다른 국가에서 온 거주자를 위한 법회도 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글_ 불교신문

한국 단청의 프랑스 첫나들이 파리 길상사에서 열린 '산사의 그림전'

신록이 푸르른 5월 부처님오신날을 맞이하여 파리 근교에 위치한 저희 길상사에서는 '산사의 그림'을 주제로 특별 전시(2014년 5월 4일~5월 18일)를 개최하였습니다. '한국 불자 협회'로 프랑스 당국에 등록되어있는 길상사는 '무소유'라는 정신적인 가치를 주창하신 법정스님에 의해 1993년 10월 파리 근교에 세워졌습니다.

이번에 소개된 작품들은 문화재 수리와 복원을 전문으로 하는 '도화원' 소속 장인들이 한국의 중요 문화재로 지정된 5개 사찰의 단청 문양과 벽화를 모사한 것으로, 지난 2년간에 걸쳐 저와 도화원의 장인들이 신심과 원력으로 준비한 기획전이었습니다. 한국 사찰에 있는 단청 그림을 이곳 길상사에 선보이게 된 취지를 설명해 드리면, 지난 7년 6개월 동안 길상사의 소임을 맡으면서, 다양한 분들을 접할 수 있었는데, 이러한 인연을 통하여 느낀 점은 한국인들 스스로 정체성에 대해 고민을 하고 있다는 점과 또 다른 한편으로는 한국 문화에

대한 이해가 지극히 피상적이라는 점이었습니다. 불교 미술을 넘어 한국의 채색 문화의 원류인 단청을 소개함으로써, 한국인들에게는 잊혀져가는 아름다운 우리 문화를 기억하는 기회를, 프랑스인들에게는 한국의 전통 미술을 접할 기회를 드리고 싶었습니다.

이번 전시회 개막식에는 길상사가 위치하고 있는 토크시(Torcy) 시청에서 부시장님을 비롯하여 유네스코 한국 대표부의 대사님께서 특별히 본 행사를 축하하러 오셨고, 이 밖에도 국제기구, 프랑스 한국학계, 미술계 등 다양한 분야에서 한국과 직간접적으로 인연이 있는 200여 분들이 오시어 대성황을 이루었습니다.

현재 한국과 프랑스 양국의 정부는 한불 수교 130주년을 맞이하여, 2015~2016년에 걸쳐 양국 간의 문화 교류를 증진하기 위한 여러 가지 행사들을 계획 중인데 이런 기회를 통해 중단 차원에서 여태껏 소개될 기회가 없었던 한국 불교문화의 숨겨진 보물들을 많이 선보여 한국과 프랑스 간의 문화 교류를 더욱 돈독히 할 기회로 삼기를 희망해 봅니다. 이런 의미에서 2014년 부처님 오신 날을 맞이하여 파리 길상사에서 개최된 행사는 앞으로 문화의 도시 파리에 한국 불교문화를 널리 알리는 문화 불사의 작은 디딤돌 구실을 할 수 있기를 발원해봅니다.

글/사진 해원스님(파리 길상사 주지)



뉴질랜드 남국정사, 대응전 건립 위한 고승 선사화전

뉴질랜드 남국정사(주지 동진스님)가 창건 20주년을 기념, 불사 기금 마련을 위한 고승들의 선사화전을 5월 13일부터 18일까지 대구 대백프라자 갤러리에서 개최했다. 법당, 승당, 선재문화원 3개 동의 불사를 위해 선사화의 대가로 알려진 일장스님과 중요무형문화재 제48호 불화단청장 고(故)석정스님의 선사화 작품을 비롯해 성철, 서옹, 석주, 일타, 보성, 법정, 원명, 성우, 중광, 벽암, 화봉, 수안스님 등 대표적인 큰스님들의 작품을 전시했다.

남국정사는 1994년 신도들에 의해 설립된 뉴질랜드 최초의 한국사찰이다. 1997년 오클랜드 시티에서 30여 분 거리에 2만 평 부지를 확보했지만 불사를 하지 못하고 지

금까지 창고 법당에서 매주 일요일 법회를 열고 있다.

작년 오클랜드 시청으로부터 현 사찰부지의 종교 목적 이용 허가를 받았으며 법당과 종무소, 요사채 등 3개 건물의 건축 허가를 취득했다. 불사 조감도 설계는 만해마을을 설계한 국민대학교 조형 건축학과 김계천 교수가 맡았다.

교회와 성당 등 이웃 종교시설이 200여 곳인데 반해 한국사찰은 2개밖에 없는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남국정사는 다도회와 합창단, 청년회, 불교대학 등을 운영하고 있다. 동진스님은 '해외사찰의 어려움은 스님들에게는 고통이자 수행'이라고 말한다. 뉴질랜드 남국정사 www.namkook.org

뉴욕 불광선원, 세월호 희생자 위한 천도재

세월호 참사에 대한 추모 물결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한인사찰이 희생자들을 위한 추모법회를 열었다. 뉴욕 불광선원(주지 휘광스님)은 지난 4월 27일 일요일 밤 11시에 '세월호 참사 희생자 위한 추모법회'를 열고 실종자 무사귀환 발원과 함께 사고로 희생된 이들을 위한 천도재를 열었다.

이날 휘광스님을 비롯한 신도 200여명은 "아미타부처님아시여! 깊고 어두운 바닷속에 있는 세월호 아이들의 손을 잡아 주시옵고 애통하고 오열하는 가족들의 심장을 어루만져 주시옵소서."라고 발원하고 "생을 마감한 아이들이 밝은 세상에 태어나기를 간절히 발원하나이다."고 기도했다. 이날 참가자들은 영가를 위해 '금강반야바라밀경' 전편을 독송했다.

글_ 뉴욕 중앙일보



워싱턴사원연합회장 경암스님 입적

미주불교신문 발행인이자 미국 워싱턴 보림사 주지 경암스님이 부처님오신날을 사흘 앞둔 지난 5월 3일 오전 8시 32분 세수 70세로 입적했다. 암 투병 중이었던 경암스님은 여섯 시간 반에 걸친 대수술을 마치고 회복 중에 입적했으며 "맑고 향기롭게 살라."는 유언을 남기셨다고 미주불교신문이 보도했다. 판상좌이자 메릴랜드 무량사 주지 해인스님은 워싱턴사원연합회장을 맡았던 경암스님의 갑작스러운 입적으로 보림사는 물론 워싱턴 불교계가 큰 충격에 휩싸였다고 말했다.

경암스님은 제주에서 출생, 마곡사에서 출가하여 1984년 도미, 워싱턴 보림사를 창건했으며 대원불교대학 미주분교장, 미주불교신문 발행인, 태화산 아란야사 주지 등을 맡으며 미국 내 한국불교 포교에 앞장서왔다. 지난해 연말부터 건강에 이상이 생겨 여러 차례 입원을 거듭했지만, 도량 불사 등 병환 중에도 전법 의지를 불태웠다.



시인이자 동양화가로서 활발한 활동을 펼쳐 지난 2012년 제9회 국제선서화전을 통해 달마도를 비롯하여 거북, 용, 코끼리 등 민속화까지 다채로운 작품세계를 선보였다. 그 해 11월 서울 국회의사당과 조계사 나무갤러리에서 선화전을 열었고, 2013년에는 캐나다, 오사카, 미국 등에서 순회전을 열기도 했다.

경암스님의 초재와 2재는 만상좌 해인스님이 무량사에서 집전했으며 5월 22일 3재부터 보림사에서 봉행되고 있다. 49재는 6월 19일이다.

보림사 +1-703-352-0380

부처님오신날 미주 사찰 봉축대법회 자비와 지혜의 물결 미국을 물들이다

불기 2558년 부처님오신날을 맞아 미국 전 지역의 한국 사찰들이 봉축법회를 갖고 부처님 탄신의 기쁨을 세상에 전했다. 법요식과 함께 다양한 문화행사도 함께 진행되어 한바탕 축제의 장을 펼쳤다. 또한, 세월호 희생자들에 대한 슬픔과 기원도 함께 나누는 시간이었다. 미주 사찰들의 봉축법요식 모습을 담아본다.

◆**뉴욕불광선원** 대한불교조계종 미동부 해외특별교구 소속 뉴욕 불광선원(주지 휘광스님)은 5월 4일 봉축대법회'를 개최했다.



300여 명의 신도가 참석한 대법회에서 휘광스님은 봉축사를 통해 “이 지구라는 조그만 별에 오신 부처님께서 삼천대천 우주 세계에서 인간만이 최고 존재라고 당당히 밝히셨다. 집착과 질곡의 고통 속에서 헤매는 사람들에게 걱정열반과 해탈이라는 대자유의 정신을 가르쳐 주셨고 자비를 실천하셨다.”며 “자비는 연습해야 한다. 세월호 승무원들이 자비를 연습했다면 어린 학생들을 버두고 그냥 나오지는 않았을 것이다. 남을 위한 자비실천을 연습하는 생을 살아야 한다. 부처님오신날을 맞아 부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높은 뜻을 밝히고 사랑과 자비의 생을 살아가자.”고 봉축했다. 부주지 헤민스님은 “세월호에 갇힌 학생이 ‘엄마 사랑해!’란 마지막 문자를 남긴 것이 너무 안타깝고 가슴 아프다. 우리가 만약 우리의 목숨과 생명이 1시간밖에 남지 않았다면 어떻게 누구랑 화해하고, 누구와 함께, 어떤 의미로 살아야 할 것인지 곰곰이 묵상하자.”며 명상의 시간을 가졌다. 이날 대법회에는 영어권 불자들도 함께 자리했다.

봉축대법회는 헌공의례에 이어 봉축점등, 삼귀의, 보현행원, 발원문낭독, 육법공양, 축하공연, 축사, 장학금 수여식, 봉축법어, 관불의식 등으로 진행됐다.

◆**시카고 불타사** 불기 2558년 부처님오신날을 맞아 시카고 불타사(주지 현성스님)가 3일과 4일 봉축행사를 했다. 3일 오후 6시 30분 점등식과 제등행렬을 시작으로, 7시에는 보원 관음전에서 제8회 불타 예술제가 열렸다. 예술제에서는 불타합창단, 불타예술단, 불타사 어린이학교에서 부처님 탄생을 축하하는 합창과 춤, 연극을 각각 무대에 올렸다.



현성스님은 “부처님께서 일체중생의 고통을 치유하는 방법으로 고집멸도 네 가지 성스러운 진리를 말씀하셨다.”며 “부처님의 뜻과 가르침에 따라 부처님의 제자들은 사랑과 자비로 고통받는 중생들에게 다가가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말씀하셨다.

올해 불타예술제에는 지난해에 이어 베트남 절 광명사(주지 벤 티치 민 한)의 신자들이 참가해 베트남 전통 무용을 선보이는 등 양국이 문화교류를 통해 부처님 오신 날을 축하했다. 벤 티치 민 한 스님은 “앞으로 매년 행사에 참가해 양국 중생들에게 부처님의 말씀을 더 많이 알리는데 힘쓰겠다”고 말씀하셨다.

◆**맨해튼 국제봉축 법요식** 불기 2558년 부처님오신날 기념 국제봉축 법요식이 4일 맨해튼 유니온스퀘어가든에서 열렸다. 대한불교조계종 미동부 해외특별교구(교구장 휘광스님) 주최로 열린 법요식에는 한국을 비롯해 스리랑카, 일본의 스님과 신도들이 참석했다.



◆**하와이 무량사**(주지 도현스님)는 오전 10시 설법전에서 열린 봉축 법회에서 부처님오신날 봉축 발원문 외에도 조국의 화합과 통일을 기원하고 세월호 실종자 구출과 희생자들의 왕생극락을 기원했다. 한인사회를 위한 발원문을 통해 무량사가 일심으로 추진 중인 팔로로 한인요양원이 속히 건립되어 한인사회 복지와 화합에 기여할 수 있도록 불보살님의 가피를 축원했다.

◆**북가주 한인 사찰도** 봉축법회·연등 점등식을 통해 부처님의 자비와 광명을 일깨우는 시간을 가졌다.



LA 태고사(주지 형전스님)는 주지 소임 후 첫 부처님오신날을 맞이하여 “부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를 찾고자 노력하고, 하루하루 부처님 닮아가는 삶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고 법문했다. 산브루노 여래사는 참석한 모든 불자가 ‘신묘장구 대다라니’ 봉독을 통해 세월호 참사를 추모했다. 소원스님은 “세월호 참사의 안타까움에 잠을 이루지 못했다.”며 “어른들의 책임 회피와 허술한 초기 대응은 분명한 잘못이지만, 이것은 우리 모두의 업보”라며 불자의 올바른 마음가짐을 강조했다. 산호세 대승사는 정운 큰스님이 열반하시고 설두스님이 주지로 새로 취임해 맞는 부처님오신날을 송축했다.

글 편집부

애리조나 법흥사 법흥선원과 투산 서종사, 한국의 사찰 성지 순례 회향

지난 4월 15일부터 25일까지 10박 11일 동안 미국 애리조나 법흥사 법흥선원과 투산 서종사 재가불자 8명이 주지 법연스님과 함께 모국인 한국의 사찰 성지 순례를 다녀왔다.

이번 순례는 3년 전부터 비행기 값을 모으기 시작하면서 계획됐고, 작년 9월에는 애리조나 법흥선원에 삼존불을 모셔 회향하면서 떠나게 되었다. 50대부터 80대까지 나이가 든 어르신들이 한국의 부처님 도량을 한 번도 못보고 갈 것 같다고 안타까워하곤 했다. 더 늦기 전에 출발을 결심하고 인천 용화선원을 시작



으로 송광사, 강원도의 낙산사와 월정사, 경주의 불국사, 양산의 통도사 등 한국 사찰들을 10일 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참배했다. 다행히 사찰에서 숙식을 제공 받았고, 직접 운전하였기 때문에 돈을 절약할 수 있었다. 하지만 더 좋았던 것은 새벽예불, 사시불공, 저녁예불을 빠지지 않고 참석하면서 느끼는 행복이었다. 해외에서 살다 보면 이런 기회를 얻기가 참으로 어렵다. 성지 순례를 통해 지심 참회 기도를 하면서 업장도 녹이고, 심신도 더욱 돈독해지며 ‘나를 찾아가는 길’에서는 느낌이였다.

많은 걱정이 있었지만 아무런 사고 없이 무사히 회향했다. 역시 모든 일은 부처님이 다 알아서 해주신다는 생각이 가슴에 와 닿았다. 이제 미국으로 돌아와 일상에서 최선을 다하는 신도들을 보며, 오늘도 부처님 법을 전하는 내 일에 전력을 다하리라 다짐해 본다.

글 법연스님

외국 생활의 외롭고 고단함, 한국불교 있음에 국제포교사회, 이주민 시티투어 진행

지난 5월 18일(일)에 이주민 시티투어 행사가 있었다. 이 행사는 한국의 결혼이민자, 산업체 근로자, 유학생들을 대상으로 한국 불교 및 문화에 대한 이해를 넓히고 이국 삶의 어려움을 잠시나마 위로하기 위한 행사로서 대한불교조계종 포교원에서 주최하고 국제포교사회에서 매년 주관한다.

올해는 네팔, 미얀마, 방글라데시, 스리랑카의 결혼이민자와 유학생 등 127명이 참가하여 봉은사 미륵대불 앞에서 입재식을 갖고 행사가 시작되었다. 국제포교사 권영구 회장은 “오늘 하루만이라도 삶의 어려움을 잊고 즐거움을 얻어 삶을 재충전할 기회를 갖기 바란다.”고 격려했다.

입재식 후 해설을 들으며 봉은사의 전각과 성보 문화재를 둘러보면서 각국 불교문화의 공통점과 차이를 알게 되었다. 이어 한국의 과거와 현재를 이해하기 위해 서울타워에 올라가 현재의 세계도시 서울의 발전된 모습을 구경했다. 남산골 한옥마을에서는 한국의 한옥을 이해하고 한국문화와 놀이를 체험하면서 한국 생활을 이해하는 시간을 가졌으며, 창경궁 관람에서는 궁궐의 특징과 의미를 알게 되었다. 마지막으로 화합과 즐거움의 순서로 용산가족공원에서 하루의 행사를 회향하며 웃음치료 및 공연을 진행했다. 회향 한마당에서 유학생과 각 나라의 참가자를 대표하여 소감을 듣는 시간을



가졌는데, 한 스리랑카 참가자는 “한국에서 근로자로 생활하면서 말로 다 하기 힘든 어려움을 겪는데 한국의 불교계에서 단 하루만이라도 이렇게 어려운 삶을 잊고 즐거움을 느낄 기회를 주어서 진심으로 고맙습니다.”라며 한국생활의 어려움을 토로했다.

참가자들은 임경득 웃음치료사의 공연에 폭소를 터뜨리며 이국 생활과 근로자로서 겪는 삶의 고단함을 날려버렸다. 이어 찬불가타 그룹 메타가 ‘토요일 밤에’와 ‘꿈에 본 내 고향’ 등 가요 메들리를 부를 때는 멀리 고향의 가족과 친구 생각에 잠겼다. 오늘 행사에 대한 답례로 스리랑카 참가자들의 중창도 있었다.

행사 후 국제포교사회 봉사자들은 이주민시티투어 행사는 불교계가 이주민들의 어려움을 가장 가까이에서 이해하고 해소해줄 수 있는 좋은 방법이라는 데 의견을 같이하고, 다만 이주민과 유학생을 구분하여 행사를 추진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글 국제포교사

환경을 생각하는 웨삭 데이

페탈링 자야, 말레이시아 - 보다 소박하고 친환경적으로 웨삭 데이를 봉축함으로써 생명과 환경을 중요시하는 불교의 가르침을 구현하려는 노력이 퍼지고 있다. 이곳 스리랑카 사원의 부주지 시리위말라 스님은 웨삭 데이는 부처님과 그 가르침에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고 말한다.

“웨삭은 부처님의 탄신, 득도, 열반을 기념하는 날이지만 또한 어머니 자연이 우리에게 베풀어 준 것에 대해 감사하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좀 더 고요하고 평화로운 분위기를 위해 요란한 음악은 사용하지 않을 것입니다.”

또한 그간 많은 돈을 들여 외부에 제작을 의뢰했던 장엄물도 직접 제작한다.

“그 동안 봉축 행렬을 위해 제작했던 거대한 장엄물들은 수천 개의 전구와 전기시설이 달려 있어 행사 후에는 처리 및 보관이 큰 골칫거리였습니다.”

웨삭 데이를 친환경적으로 치루기 위한 노력은 작년부터 시작되었다. 공사에서 쓰고 남은 재료들을 활용해서 스님들과 신도들의 힘으로 6개의 장엄물을 제작함으로써 막대한 경비를 절약했다. 스님들과 신도들이 합심한 이 작업으로 인해 웨삭 데이는 더욱 의미 있는 행사가 되었다. 음식을 담은 용기도 폴리스틸렌이나 종이로 만든 1회용 접시 대신 빨라민 접시를 사용해서 나중에도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 종이연등을 만들고 있는 스리랑카 사원 스님들



“신도들이 본인 식기를 가져온다면 더 좋겠습니다. 그럼 남은 음식들을 가져갈 수도 있으니까요.”

마하 비하라 사원의 경우에는 청년 봉사단체인 D2Y(Dhammaduta Development Youth)이 친환경 활동을 펼치고 있다.

“워낙 많은 사람들이 오기 때문에 행사가 끝나고 나면 쓰레기들이 넘쳐납니다.”

작년에는 음식물 포장상자 510kg, 쫄농 25부대, 기름 반 배럴, 쓰레기통 8개 분량의 음식물을 수거했다. D2Y는 금년에는 생분해가 되는 음식 용기와 작은 성수 병을 나눠준다. 이와 더불어 장엄물 제작 경비도 줄이고 LED전구를 사용해 내년에도 다시 사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사찰의 일요담마학교 학생들도 이 운동에 동참하고 있다. 학생들은 재활용 플라스틱 병을 잘라 만든 연등 쫄대를 판매하는데 수입금은 모두 일요담마학교를 위해 사용된다.

Christina Low, The Star [2014. 5.13]

유엔, 국제 웨삭 데이 기념 행사 개최

뉴욕, 미국 - 지난 5월 13일 뉴욕 유엔빌딩의 신탁통치이사회실에서 국제 웨삭 데이를 기념하는 행사가 열렸다. 이는 유엔총회 결의안 54/115에 따른 것이다. 태국의 노라치트 신하세니 대사가 행사를 집전했으며 반기문 유엔총장, 존 아쉬 총회 의장 등 많은 고위 인사들이 참석했다.

존 아쉬 의장은 “부처님의 가르침은 오늘날에도 온전하게 남아있으며 이성과 자유를 토대로 인간 존재와 정신의 존엄을 인식하게 만든다.”고 말했다. 반기문 유엔사무총장은 부처님의 가르침을 통해 평화와



안전, 환경 개발과 보호의 측면에서 세계가 직면하고 있는 많은 도전을 해결해 나갈 영감을 얻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The Buddhist Channel [2014. 5. 29]

영국국립도서관, 불교 초기 인쇄물 전시

런던, 영국 - 지난 3월부터 내년 8월까지 초창기 금강경 인쇄본이 영국국립도서관(the British Library)에서 최초로 전시된다. 원래 두루마리 형태였던 금강경은 보관 처리 후 현재 패널로 나뉘어져 있으며 순서대로

두 달 동안 대중들에게 무료로 전시될 예정이다. 머리그림(표제화)은 내년 7월과 8월 마지막 전시 기간 동안 다시 전시된다. 금년 5월부터 6월까지 전시되는 첫 번째 패널은 금강경의 첫 6장을 수록하고 있다.

이외에도 금강경보다 약 10년 후인 877년에 제작된 중국 달력 한 부, 중국어 발음 표기가 병기된 산스크리트어 반야심경 두 페이지, 우리나라 초기 금속활자 인쇄본, 그리고 일본 최초의 인쇄물인 ‘쇼토쿠(성덕, 聖德)여천황의 백만 개의 부처’ 중의 몇몇 작품이 함께 전시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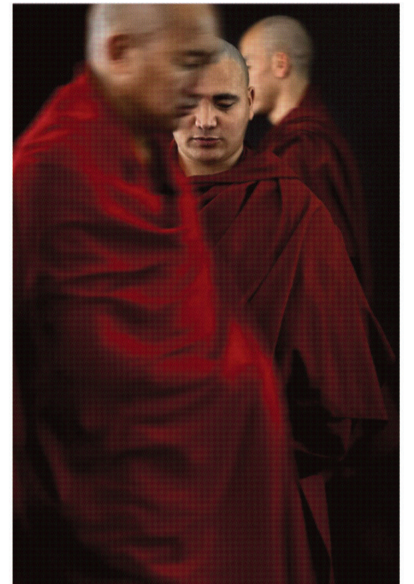
buddhiststartnews [2014. 5. 16]



가사를 통해 본 수행자의 삶 사진전

시드니, 호주 - 티베트의 전승에 의하면 출가 수행자가 울바르지 못한 행동을 한다면 그것은 바로 부처님의 옷을 발에 붙잡아 메고 부처님을 진흙 속으로 끌고 다니는 짓이라고 한다. 티베트인들에게 붉은 가사는 가장 소중한 민족 자산이기 때문에 부처의 가르침이 우주에서 사라질 때 붉은 색도 또한 사라질 것이라고 믿는다.

토비 윌킨슨의 전시회에서 가사는 무(無)의 상징이면서 불교적 아름다움과 우아함의 발현이다. 이미지들은 예술적인, 또한 성스러운 정신들을 압축해서 보여준다. 6년 동안 사진 작업의 대상이 된 스님들을 관찰해 온 윌킨슨은 “나는 비밀스럽고 추상적인 것들, 그림자와 형태속에 뚜렷이 드러나는 삶에 대한 성찰, 동작의 효과, 그리고 보이지 않는 것들에 매혹되었다.” 라면서 “사진들은 수행자의 깨어있는 순간들을 증거하는 영적 위엄으로 이 모든 요소들을 결합하고 있다.”고 설명하며 수행자의 가사로 상징되는 영적 수행에 대한 존경을 강조한다.



그녀의 작품들은 정형화된 사물의 이면으로 우리를 안내해 매 순간마다 생각, 말, 행동 속에서 영적인 삶을 추구하는 놀라운 존재들을 만나게 한다. 전시는 시드니의 본디 파빌리온 화랑에서 4월 15일부터 열렸다.

buddhiststartnews [2014. 4. 20]

호주 불교역사 기록 영화 제작 계획

시드니, 호주 - 호주 불교를 형성해온 사람들의 삶을 기록하는 다큐멘터리 영화가 기획되고 있다. 데킨 대학의 연구원들이 Pozible.com 과 제휴를 맺고 영화 ‘호주 불자들의 삶의 이야기 Buddhist Life Stories of Australia’ 제작을 위한 모금을 시작했다. 제작 관계자들은 이 작업이 호주에서 불교의 성격이 어떻게 변화했고

또 변화할 것인지, 호주 불교도들의 삶은 어떤 모습인지 등을 살펴보는 광대하고 장기적인 연구 계획의 첫 단계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유튜브에 올린 홍보영상에는 현대 호주 불교의 주요 인물들이 등장한다. 호주에서 오랜 역사를 가진 불교는 현재 규모에 있어 두 번째로 큰 종교로 발전했다. Buddhadharma [2014. 5. 13]

만화로 여는 깨달음의 길

도쿄, 일본 - 종교는 사람을 마취시킨다고 말해지곤 하는데 일본에서는 만화가이 역할을 담당하는 듯 보인다. 동경 미나토, 시바 공원에 자리한 증상사(増上寺, Zojo-ji)는 5월 13일까지 부처님을 주제로 한 만화 전시회를 가졌다. ‘만화가들이 그린 부처님 그림 전시회’에는 오사마 데츠카, 후지오 아카츠키, 다카오 사이토 등 만화가 50여명이 그린 작품들이 전시되었다.

“만화는 일본의 대표적인 예술 형태이기 때문에 전국의 만화가들에게 이 전시회에 동참해 줄 것을 부탁드립니다. 자신의 개성을 살려 자신만의 부처님을 표현해 줄 것을 요청했죠. 많은 만화가들에게 이런 주제는 생소했기에 작업 활동은 일종의 탐험이라고 할 수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약사여래부처를 지키는 12신장들은 코지 마야지마의 작품에서는 동화책 주인공으로 나와도 될 법한 귀여운 인물들로 등장한다. 반대로 히로시 모토미야의 작품에서는 황금부처가 탄 가마의 행차를 알리는 무장한 검은 무사들로 묘사된다.



전시 작품 중에는 코믹한 모습들이 많다. 아카츠키의 유명한 캐릭터 바카본 파파는 수많은 팔을 가진 아수라로 표현되는데 그의 손에는 스낵과자와 청소용품 등이 가득 들려 있다.

증상사에서 열린 전시회는 지난 4월 교토의 동사(東寺, To-ji)의 전시회를 이은 것이다. 이 전시회는 교토의 고산사(高山寺, Kozan-ji)에 오랫동안 보관되어 있었던 12~13세기의 두루마리 그림 ‘유쾌한 동물과 사람들’을 기념하기 위해 시작된 것이다. 4폭의 그림으로 구성된 이 유명한 작품은 일본 현대 만화의 선구적 작품으로 간주되고 있다. 전시회는 다른 사찰로 이어져 전국적으로 계속될 예정이다.

Louis Templado, Ashhi Shimbun [2014. 5. 10]

바흐와 슈베르트로 불심 잡는 스님들

천태산, 중국 - 전통적인 단조로운 음률의 불교 음악대신 바흐나 모차르트를 연주하고 있는 스님들을 상상해보라. 너무도 낮설지만 호북성(湖北省)의 천태사 신도에게는 너무도 친숙한 모습이다. 이 사찰에는 중국 최초로 고전 불교음악을 가르치는 전문 과정이 개설되어 있으며 매년 불교음악 페스티벌이 열린다. 악단은 2008년 주지 우 레 스님에 의해 창설되었는데 연령 10세에서 32세에 이르는 40여 명의 스님들로 구성되어 있다.

“저는 항상 불교가 어떻게 하면 사람들에게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는지 고민했습니다. 그래서 다른 종교의 관습들을 많이 연구했죠. 교회에 처음 들어섰을 때 천사가 부르는 듯한 합창소리를 듣고 음악의 힘에 매료되었습니다. 우리도 이와 같은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음악을 통해 불교의 정신을 널리 퍼는 것입니다.”

사찰에 악단이 결성된 것은 중국에서는 최초의 일이다. 그런데 왜 서양 고전음악일까?



“서양의 고전음악은 종교음악이라는 신성한 형태로 몇 백 년 동안 사람들과 함께 해왔습니다. 불교 전통 음악은 너무 딱딱해서 젊은 세대들이 불교를 배우는데 방해가 될 수도 있습니다. 비(非)불교도들에게 불교에 대해 더 많은 것을 전달하려면 다른 방법을 이용해야 합니다. 불교는 나이든 세대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불교는 또 일상 생활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초기에 많은 비판에 직면하기도 했으나 작곡가인 예 시아오강의 생각은 다르다.

“음악은 경계가 없습니다. 어떤 종류의 악기도 불교의 사상을 표현할 수 있습니다. 불교 음악이 다양한 형태를 가질 때 더 호소력을 가질 것입니다.”



스님들은 하루 7시간씩 악기를 배우고 연습했다. 불교음악페스티벌과 같은 특별한 행사 때는 축제에 참가한 저명한 교수들의 무료지도도를 받을 수 있다.

“스님 학생들은 매우 특별합니다. 전공 학생들보다 더 열심이고 끈기가 있습니다. 바이올린을 연습하는 것은 선수행과 같다고 생각합니다.”고 바이올리니스트 리양 단안은 말한다.

25세의 비구니 스님 쟁 슈는 처음에는 바이올린과 비올라도 구별하지 못했다고



한다. “정말 힘들었습니다. 전에는 한번도 바이올린을 본 적이 없었으니까요. 어떤 때는 자포자기 심정으로 바이올린을 부숴버리고 싶기도 했습니다. 그때마다 바이올린에 대해 평화로운 마음을 가져야 한다고 자신을 달랬습니다. 마음의 평화를 가지게 된 후로 제 연주에서 미묘한 변화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Fei Ye, CCTV.com [2014. 5. 9]

20여 년의 기도, 마루에 새겨지다

통렌, 중국 - 70세의 후아 치 스님은 지난 20여 년 동안 항상 똑 같은 자리에서 절을 해왔다. 그 결과 그 동안 그의 발이 닿았던 수백 년 된 나무마루에 그의 발 모양이 또렷이 새겨졌다. 스님은 매일 동이 뜨기 전 새벽 사원에 와서 마루에 패인 자신의 발자



국에 발을 맞추고 서서 절을 시작한다. 발가락 아래 도톰한 부분은 나무판 속으로 1.2인치 깊이나 패였다.

“첫 몇 년간은 하루에 2천 배 내지 3천 배 정도 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나이가 들다 보니 근래에는 한 천 배 정도 하고 있습니다. 거기다 날이 추울 때는 5백 배 정도 밖에 하지 못합니다.” 그는 마치 잘못을 저지른 양 몸을 움츠린다.

한의사이기도 한 후아 스님은 다음 생은 보다 편안하기를 바란다.

“제가 이 절을 새웠습니다. 기도를 하고 절을 돌아보며 내세에는 더 이상 고통 받지 않기를 발원합니다.” Metro [2014. 5. 26]

유타주(洲)에 최초로 불교 사찰 건립

웨스트 밸리 시티, 유타(미국) - 유타주에 불교 사찰이 건립되고 있다. 캄보디아 주민들의 모금으로 건설 중인 이 사찰은 유타주에서 건설되는 최초의 사찰이다.

“작년 모임에서 우리는 이곳 불교도들을 위한 사찰이 필요하고 그러려면 우리의 모임도 더 발전해야 한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고 유타불교사원의 위원장 레이 하우어는 말한다.

지난 20여 년 동안 작고 허름한 차고에서 법회를 가져왔던 캄보디아 불자들이 이제 자신들의 기금으로 건립한 사찰을 갖게 된 것이다. 새로운 시설에는 캄보디아인들을 위한 영어교실도 마련할 예정이다. 하우어는 이 사원이 캄보디아 본토와 미국에 살고 있는 캄보디아인들이 서로 교류하는 주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



“이 사찰은 다리와 같습니다. 이곳에서 젊은 세대들은 그들이 알아야 할 문화, 종교 그리고 많은 문화 활동들에 대해서 배울 수 있습니다. 서로 교류하며 서로 주고 받는 것입니다.”

공사는 3월에 시작되었으며 4, 5개월 후에 완공될 예정이다.

Meredith Forrest Kulwicki, Fox 13 Now [2014. 4. 27]

왜 불교가 서구인들을 사로잡는가

런던, 영국 - 이제 불교는 서구문화의 한 부분으로 자리잡았다. 할리우드 배우 올란도 블룸, 리처드 기어 그리고 럭비 스타 조니 윌킨슨 등은 불교를 자신의 정체성으로 받아 들인 많은 서구 불교인들 중 소수의 예에 불과하다. 사실 의회에서 열리는 마음챙김 강좌부터 학교의 묵언 교실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형태의 명상은 많은 사람들의 일상이 되었다. 극히 세속적인 서구사회에서 불교가 환영을 받고 있는 현상-고요히 미소 짓고 있는 부처, 오렌지색 가사, 황금빛으로 빛나는 사원 등에 대한 믿음-은 어떻게 설명될 수 있을까?



절대자적인 신이라는 개념에 불편함을 느끼는 사람들도 있다. 불교는 신이라는 존재를 다루지 않고 신에 종속되지 않는 인간적 비전과 영적 생활을 제시한다. 인간 스스로 자기 변화의 방법을 설계하고 자신이 직접 자신의 삶을 통제하고 책임을 지는 것이다. 이것은 서구인들의 독립적이고 도전적인 정신과 양립한다. 이러한 태도는 서구의 심리분석과 심리치료를 통해 진화해온 치유와 자조의 문화를 더욱 증진하는 것이다. 불교는 마음의 구조와 현상에 대해 풍부한 자료를 보유하고 있으며 현대의 ‘마음 과학’과 소통하는 것으로 보인다. 매일매일 일상생활의 모든 측면에서 우리는 마음 상태의 중요성을 절감하고 있다.

사람들은 뭔가 다른 것을 기대하면서 불교에 입문한다. 이들은 영적, 혹은 삶의 문제들을 가지고 있으면서 기존 종교에 환멸을 느낀 사람들이다. 물론 새로운 것, 다른 것은 뭔가 더 좋을 것이라고 생각되는 막연한 기대일 수도 있지만 기존 종교 조직 내의 서열체계, 근본주의, 분파주의, 폭력의 묵인 등이 그 원인이 되기도 한다. 불교가 발전해온 아시아 국가들의 역사를 모르기 때문에 이상적인 측면에서 접근하기도 한다.

또한, 정교한 위계서열도 없고 정치에 개입하지도 않는 불교는 평등주의 시대에 매우 매력적이다. 종교의 틀에 구속되지 않고 영적 발전을 추구하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불교는 매우 적합하다. 기독교, 유대교, 이슬람교처럼 서구에서 친숙한 종교에 나타나는 인류의 삶이란 신의 계시에서 세계의 종말까지로 국한되고 신이 이 모든 것들을 주재하는 반면 불교는 인간의 상황을 무한하고 중립적인 우주 안에서의 순환적인 삶으로 정의한다. 어떤 사람들은 이러한 인식이 자신의 세계관과 일치한다고 생각한다.

불교는 또한 죄의식과 의무로부터 벗어나 지혜와 자비심을 발전시키는 실제적인 방법들을 제공하는 것으로 보인다. 물론 나는 왜 불교가 그렇게 대중들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는지에 대한 가장 단순한 답을 알고 있다. 그것은 불교가 우리를 돕고, 우리 삶을 풍요롭게 하기 때문이며, 사람들은 불교 그 자체로 불교를 좋아한다는 것이다.

Andrew Skilton, BBC [2014. 5. 27]
-이 글은 킹스칼리지 런던대학교 선임연구원 Andrew Skilton의 글을 발췌, 번역한 것입니다.

스리랑카 한국복지타운 '마하위하라' 건립 기공식

스리랑카 한국복지타운 '마하위하라' 건립을 위한 기공식이 5월 4일 경기도 평택시 팽성읍 석근리서 봉행됐다.

코리안 드림을 안고 가족을 떠나 열악한 한국의 3D 업종에서 열심히 일하는 스리랑카 사람들에게는 불교가 국교이자 삶의 위안이다. 지난 8년간 팔이 잘리고 화상을 입는 등 열악한 현장에서 노동의 대가로 받은 월급을 쪼개서 십시일반 모은 동참금과 한국인 지인들의 신용대출로 받은 돈을 합해 황금 같은 땅 250평을 마련했다.

기공식에는 담마끼띠 스리랑카 스님을 비롯해 티샤 위제라트네 스리랑카 대사, 월

주산사 주지 공운, 열린선원 법현스님과 스리랑카 이주노동자 및 유학생 등 500여 명이 참석해 마하위하라 건립 불사의 원만 회향을 기원했다.

티샤 위제라트네 스리랑카 대사는 "그동안 한국에 거주 중인 스리랑카 사람들이 살 수 있는 공간 마련을 위해 노력했지만, 대부분 임대형식에서 벗어나지 못했다."며 "스리랑카 사부대중의 원력으로 토지를 구입하고 여법하게 기공식을 열게 돼 무한한 긍지와 자부심을 느낀다."고 참석자들을 격려했다.

마하위하라 건립과 운영을 위한 모연을

진행 중인 담마프렌즈 대표 담마끼띠 스님은 "마하위하라는 한국생활의 적응을 위한 심리적 지원을 얻을 수 있는 장소가 될 것"이라며 "먼 이국땅에서 다양한 어려움 속에 일하고 공부하는 3만여 명의 스리랑카인들에게 힘이 되는 공간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또 "스리랑카 결혼 이주민과 이주노동자들을 위한 법회와 이주민 자녀들을 위한 한국어 수업, 다문화가정 커뮤니티 지원 등을 준비 중"이라며 "특히 스리랑카에 관심이 있는 모든 이에게는 초기 불교를 배우고 스리랑카 문화도 경험할 수 있는 문화와 학문적 교류의 장이 될 것"



이라고 설명하고, 많은 관심과 동참을 당부했다.

한편 담마프렌즈는 마하위하라 센터 건립과 운영을 위한 모금 활동을 진행 중이다.

모금계좌 국민은행 668801-01-600475
담마프렌즈(VIHARAYA),
담마끼띠스님 010-6593-0106



한국YBA 동두천이주민센터(네팔법당 용수사) 천수천안관세음보살 봉안식

희망을 열어가는 젊은 부처들 한국 YBA(총재 지광스님)가 운영하는 동두천이주민센터 네팔법당 용수사는 부처님 오신 날을 맞아 지난 5월 2일 한국인 불자 60명과 네팔인 불자 40명이 참석한 가운데 네팔에서 직접 모셔온 천수천안관세음보살 봉안식을 경건히 거행했다.

네팔은 자비로써 중생의 괴로움을 건지는 관세음보살에 대한 신앙이 매우 깊어서 네팔법당 용수사를 즐겨 찾는 네팔 불자들은 그간 천수관음을 모시기를 오랫동안 기원해 왔다. YBA운영위원장 및 여러 신도 후원 동참에 힘입어 이번에 드디어 소원을 이루게 되었다. 이번에 봉안한 불상은 이주민센터장 우르겐 라마가 네팔에서 인간문화재급에 해당하는 '수단상카'에게 직접 조상을 의뢰해 제작이 운한 것으로서, 네팔 불자들에게 특히나 의미가 남다르다.

네팔법당 용수사는 지난 2009년 10월에도 네팔과 한국 불자들이 힘을 합쳐 네



팔인들이 소중히 모시는 파드마삼바바 불상을 모셔 온 바 있다. 설립 이래 네팔이주민의 신행 생활과 의료를 적극적으로 지원해 온 네팔법당 용수사는 이 행사를 계기로 더더욱 네팔 이주민들에게 사랑받는 보금자리로 자리 잡을 전망이다.

한국YBA 02-6414-1034

반갑다연우야 · 전국병원불자연합회 용수사에서 이주민들에게 자비의 의술 펼쳐

사단법인 날마다 좋은날 반갑다연우야 봉사단과 전국병원불자연합회는 소외계층과 다문화가정 의료 지원 사업을 꾸준히 진행하고 있다.

지난 5월 25일(일) 동두천에 위치한 용수사(네팔법당)에 이어 6월 1일에는 동대문 몽골 법당을 찾아 치과 및 한방 진료를 진행했다.

한방치료가 낯설던 이주민들이 처음엔 침 치료나 부항 치료를 무서워하기도 했지만, 한방치료의 효과를 몸소 체험한 후 이전 스스럼없이 치료를 받고 있다. 다문화가정과 이주민들이 행복하고 건강한 삶을 일궈 나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꾸준한 활동을 기대해본다.

사단법인 날마다좋은날 02-732-7272



통합을 넘어 융합으로, 열린 다문화사회를 위한 나눔

2014 다문화정책 토론회

2014.6.14 (토)
오후 2시 30분 ~ 4시 30분
전북대학교 삼성문화회관 건지영상아트홀

사단법인 착한벗들에서는 전북 최초로 다문화가정 자녀들의 교육 적응 실태 조사를 실시하고 이에 따른 정책방향과 과제를 모색하고자 마하이주민지원단체협의회와의 공동주최로 2014 다문화 정책토론회를 준비했습니다. 행복하고 열린 다문화사회를 만들어가기 위한 작지만 뜻 깊은 자리에 함께 해주시길 기원드립니다.

주 제 전라북도 다문화가정 자녀 교육적응실태 및 개선방향

발표 및 토론자 권순희교수(이화여대국어학과), 천호성교수(전주교육대 사회학과), 김광혁교수(전주대 아동복지학과), 민완성장학사(전라북도교육청), 한양수교장(전 경기도교육청 다문화교육 장학사), 임미성교사(전북대 어문학과 박사)

시간	내용	세부사항
2시 20분	기념공연	
2시 30분	여는말	
2시 40분	사례발표1	전북 다문화아동, 청소년 교육적응실태
	사례발표2	경기도 교육청 다문화아동, 청소년 교육 정책 현황과 방향
3시 10분	토론	전북다문화아동, 청소년 교육 적응 실태에 따른 정책과제와 방향
4시 20분	질의응답	
	닫는말	

찾아오시는 길

문의 063)236-0602

공동주최 착한벗들, 마하이주민지원단체협의회

주 관 착한벗들

후 원 전라북도교육청, 김광혁 장학사, 제17교구본사 금산사, 제24교구본사 선운사